

1 개요

양이목스본풀이는 탐라양씨 명월파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제주 목사이던 양이목사는 백마 진상이 지나쳐 제주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죽었으나 그 뒤로 백마 진상이 없어져서 조상신으로 모셔졌다.

2 내용

옛날 탐라국 양이목사 시절, 제주에서는 백마 백 필을 진상으로 바쳤다. 양이목사가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진상할 백마를 보고 갑자기 욕심이 났다. 상시관에게 백마 진상 때문에 겪는 제주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 진정하고 마장의 마부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상시관에게 진상하겠노라고 하였다. 백마 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마부들은 양이목사의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양이목사는 백마 백 필을 싣고 한양 고을로 가서 백마 백 필을 다 팔고, 그 돈으로 구한 물품을 전배독선 가득 사다가 팔았다. 양이목사는 이와 같은 방식을 세 번 거듭하였다. 이렇게 되자 상시관에서도 사정을 확인하고, 금부도사와 자객을 보내어 양이목사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였다.

양이목사가 눈치를 채고 금부도사가 내려올 때에 맞추어 제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고동지의 배를 구하여 바다로 나섰다. 그러나 울돛목에 이르러서 금부도사와 만나고 말았다. 금부도사와 자객이 양이목사를 बे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양이목사는 자객의 목을 베고, 금부도사를 무릎 꿇게 하였다. 양이목사는 금부도사에게 제주 백성에게 주어진 백마 진상의 과도함을 탓하고, 자신은 육지 백성들에게 백마를 나누어주고 제주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해주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호통쳤다. 그 말을 듣던 금부도사가 펄쩍 뛰어서 양이목사의 상투를 잡아채어 돛대 줄에 묶고 고사공에게 돛대 줄을 당기게 하여 양이목사를 돛대에 매달아버렸다.

금부도사가 양이목사의 목을 베니 그 육신이 바다에 떨어졌다. 육신은 곧 청룡, 황룡, 백룡으로 변하여 물속으로 들어갔다. 금부도사가 양이목사의 머리를 흰 보자기로 덮어 이 물에 내려놓으니, 머리만 남은 양이목사가 고사공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자손들에게 탐라양씨 집안에서 고통을 하면서 내 슬픈 이야기를 풀어주면 우리 자손들을 만대유전 시켜 주겠노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금부도사가 임금에게 양이목사의 목을 바치고 그간의 사정을 고하자, 상시관에서는 제주에서 백마 백 필 진상하는 일을 없애주었다.

고사공이 전한 대로 양씨 장손 집안에서는 대대로 큰굿, 작은굿과 철갈이 등을 하면서 이 조상을 위한다.

③ 특징

양이목사가 처음에는 진상용 백마에 욕심을 낸 것으로 설정된 점이 특이하다. 끝내는 백마 진상을 막아 제주 백성을 구제하는 공을 세운 것으로 처리되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전반부의 설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 목사가 중앙의 권력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쳐 제주 백성을 구한 일은 없으나, 제주 사람들의 바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핵심어

양이목사, 백마, 진상, 상시관, 금부도사, 자객, 고사공, 청룡, 황룡, 백룡, 큰굿, 작은굿, 철갈이, 제주 목사

⑤ 원전 서지사항

양이목스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